

[ 종합 ]

# “한국 기후 아열대로 변해 생태계 위협 대책 세워야”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1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1960년 이후 지구촌의 평균온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기후가 크게 변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기후도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장기적

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1960년대 매년 평균 1천억원 대에서 1990년대 6천억원대, 2000년 이후에는 2조 7천억원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화재 발생 일수도 1980년대 평균 3.9일에서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2.4일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피해 규모도 연간 5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0.5%에 불과해 OECD 평균인 5.7%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엘니뇨·대기온도 상승 올 여름 사상최대 폭염”

영국 기후연구소장 주장

영국 이트스 앵글리아대 기후연구소장인 필 존스 교수는 21일 “올해 여름은 엘니뇨와 대기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역사상 가장 더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 존스 교수는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한국기상학회(학회장 이태영 교수) 주최로 열린 ‘기상학술 심포지엄 2007’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 “올해 북반구의 1월과 2월은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더운 겨울이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존스 교수는 “최근 50년 동안의 전 세계 표면 평균온도 상승률은 1906~2005년의 2배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사례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 9.8도 상승 ▲50년간 따뜻한 밤 증가 및 추운 밤 감소 ▲중위도 지방의 강수량 증가 ▲열대 및 아열대 지방의 가뭄 증가 ▲단기간의 집중 호우 증가 등을 들었다.

간연자인 기상청 기상연구소 권원태 박사는 “21세기의 기후변화는 20세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최근 세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온난화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박사는 “강수량은 적도 지방과 중고위도 지역에서 증가하는 반면 아열대 지방의 경우에는 줄어든 것”이라며 “다만 호우 발생빈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늘어날 것”이라며 대륙의 내부에서는 건조화 추세가 나타나면서 가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남구청 첫 ‘갈등조정위’

종교·언론계 등 14명 구성... 주민갈등 조정·해결

광주시 남구에 지역내 주민갈등을 조정·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가 생긴다. 이 위원회는 광주시에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최초다.

광주시 남구는 21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민원발생 초기부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종교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 대표·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주민간 갈등 혹은 고충민원·다수인 민원·갈등 소지가 있는 현안 등을 다루게 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22일 오후 남구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갈등소지가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한국 결혼이민 여성 10명중 4명 “고국보다 지위 낮아져”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민자 10명 중 4명은 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더 낮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과 취업 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결혼이민자 1천177가족(여성 1천63명, 남성 11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했다.

여성이민자의 43.8%, 남성이민자의 41%는 본국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더 낮다고 평가

했다. 특히 일본(65.4%)과 한국(62.0%), 조선족(45.3%) 여성이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국제결혼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가 사설과 다르다고 응답한 가운데 특히 국제결혼 증가업체를 통한 결혼이민비행 베트남 여성의 경우 31%가 배우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노대통령, 김성일 공참총장 사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김성일 공군 참모총장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수석은 “김성일 총장은 경질이 아니기 때문에 후임 임명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김 총장의

후임은 4월 초에 인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장은 최근 정비 불량으로 KF-16 전투기가 추락하고 고(故) 윤장호 하사의 예도기간인 지난 1일 충남 계룡대 내 군 골프장에서 군총장교들과 골프를 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 1주년

시민들이 기부한 중고 물품을 팔아 불우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이 개점 1주년을 맞아 21일 ‘북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장터’ 행사를 가졌다. 북구청과 주민들은 이날 6천여점의 중고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내놓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전당·공원’ 동시유치 나선다

광주시·유치추진위 관련 기관 방문 서한문 전달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민주공원’을 동시에 유치하기 위해 광주시와 시민 등 민·관이 공동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다. 광주시는 21일 “광복 이후 국내외 민주화 운동을 총망라한 인권운동의 공간이 될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민주공원 유치를 위해 22일 관련 기관 방문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한국민주주의 전당 및 민주공원 유치추진위원회” 20여명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을 방문, 유치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유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북구 장동동 일대(12만5천평)와 북구 운정동 5·18 국립묘지

일대(2만3천평)를 민주주의 전당 및 민주공원 후보지로 결정,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 안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사업과 관련된 단체 회원들을 광주로 초청해 민주주의 전당 후보지 등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유치 설명서를 보낼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공채 45대 1... 높은 경쟁률

오는 5월 12일 실시하는 2007년도 지방공무원(광주시·광주시교육청) 7·9급 임용시험 원서접수결과, 총 259명(시 187, 교육청 72) 모집에 1만1천840명이 지원, 45.7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21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9급(3명 모집) 세부직에 363명이 지원해 121 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행정 9급은 58명 모집에 6천189명이 지원해 10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교육행정 9급은 65명 모집에 1천816명이 지원해 2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한의학전문대학원 실패 “정부 잘못 탓” 감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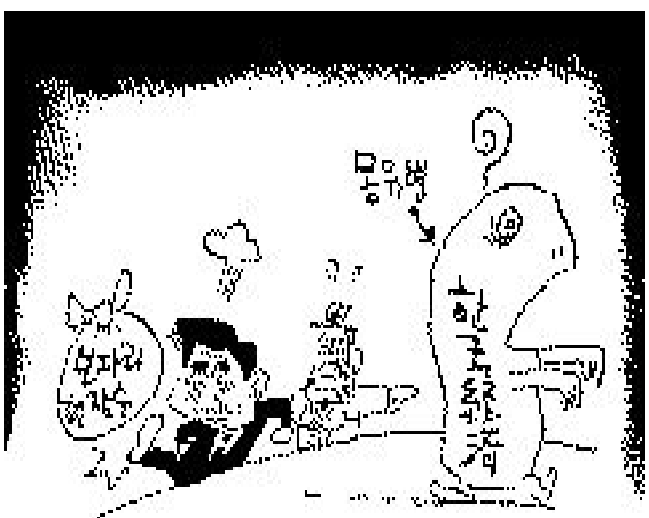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와 총동문회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실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감사원을 감사를 요청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동문회는 21일 “1천여명의 동문,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20일 감사원에 감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학교 총동문회와 총학생회는 감사 요청서에서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당시 한의대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에 두고도 통합 양해각서가 맺어진 데다 당시 감진표 부총리가 이를 거듭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인가과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신경 쓸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 결산광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先報日報 廣告국

● 전화 : (직)062-227-9600  
● FAX : 062-227-9500  
● E-mail : dd8111@hanmail.net

##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토시락납품

▶ 시안·세팅·장식·음향·선박·의사·연예·주최·주최·주최  
▶ 회식·철수·순회·선박·교과·결혼식·음식·전문·개업식·음식  
▶ 회식·연·취업식·총회·기념식·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  
▶ 홈페이지 : www.party-food.co.kr

● 성명 : 김중두 | 전화 : 광주 062-228-0085, 228-0086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재삼(481213-1640219)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기간: 2007. 3. 22 ~ 2007. 5. 21

연락처: 광주 서구 풍암동 989-12 김옥주(011-807-9821)

## 채무자 창원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변경공고

사건 2006회합11 회생 채무자 창원산업 주식회사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1083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주기가노가 사임 신청을 회사에 따라 이 법원이 2007. 3. 15. 이를 허가하고 임기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로 정하여 환상숙(1948. 1. 6. 생, 광주 북구 문충동 787-6 우성아파트 102동 602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병우 판사 장종민 판사 이병희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4. 19(목) 09:30
- 모집기간 : 3. 20(화) ~ 4. 19(목)
- 수업기간 : 4월~8월(4개월 15주)
- 수강료 : 210,000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ANGJU WOMEN'S UNIVERSITY

●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 제43회 전라남도미술대전(전국공모전) 개최요강

제43회 (2007년도) 전라남도미술대전(전국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주제: 전라남도 2. 수료: 광주시민미술대전 3. 심사: 광주시민미술대전

● 주제: 2007. 7. 28 ~ 7. 30 (5일간) / 한국화, 서양화, 사진, 건축, 공예, 조각, 서예(서예는 입선작품 전시)

● 주제: 2007. 8. 2 ~ 8. 6 (5일간) / 서예, 서예(서예는 입선작품 전시)

● 주제: 2007. 8. 12 ~ 8. 12 (1일간) / 사진, 조각, 공예, 건축, 서예(서예는 입선작품 전시)

●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시상: 대상, 우수상, 이주익 특별상, 입선작품 2007. 10.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시상: 대상, 우수상, 이주익 특별상, 입선작품 2007. 10.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시상: 대상, 우수상, 이주익 특별상, 입선작품 2007. 10.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